<패널자료>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2007. 11. 28.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정태 상무

1. 최근 CSR에 대한 현황

○ 최근 미국의 엔론사 사태, WorldCom사 등 기업 회계부정과 비윤리적 경영, 환경오염 등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CSR)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일련의 사례들은 기업이 이윤축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 CSR의 포괄범위와 중점분야 등은 각국의 경제·사회 상황이나 기업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근에는 UN과 ISO(국제표준화기구) 등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국제규범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미국은 전통적으로 기부, 봉사 등 자선활동을 중시하며 최근 기업 회계부정 사건 등을 계기로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반면 유럽과 일본은 자선활동을 CSR의 중심과제로 하지 않으며 유럽은 환경, 노동, 여성 및 사회문제에 대한 기여를, 일본은 좋은 품질의 제품 제공, 고용 및 소득 창출 등 기업 본연의 기능 수행과 환경,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을 강조하고 있음.

2.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 실적

○ 국내 주요기업의 사회공헌 실적은 다음 표와 같이 선진국 기업에 결코 뒤지지 않음.

<표 1> 국내 주요기업의 사회공헌 실적 현황

〔단위 : 억원〕

순 위	회사명	금액	순위	회사명	금액
1	삼성	4,405	6	GS칼텍스	225
2	SK그룹	1,200	7	KT	150
3	포스코	900	8	유한킴벌리	120
4	LG그룹	863	9	교보생명	117
5	현대차그룹	495	10	한화그룹	115

(출처 : 한겨레신문 2007, 2, 20일자)

– 주요외국기업과의 사회공헌의 실적을 보면 한국 기업의 공헌도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

·2005년 기준(만달러, 이익대비)하여 국내외 기업의 사회공헌 실적을 보면, Microsoft(410, 2.5%), Walmart(207, 1.3%), GE(117, 0.6%), 삼성(525, 5%)로 국내 주요기업의 사회공헌도가 외국 선진기업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

3. ‘기업’ 책임만을 강조할 경우의 부작용

○ CSR이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강조될 경우, 정부나 여타 사회적 주체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일 사이에 기대치에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그 결과,

- 첫째, CSR을 왜곡하고 법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으며,

- 둘째, 사회 내에서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고,

- 셋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업이 비난받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 이윤활동을 통해 각 사회적 주체의 부를 창출하는 핵심적 수단을 제공하는 중요 역할에서 기업이 이탈하게 만들 수 있음.

○ 기업은 정부의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려 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역할이 기업에게 강요되는 것은 더욱 바람직하지 못함.

○ 또한 CSR를 이유로 기업에 사회적 책임(공헌)을 강제할 경우 사회적 공헌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이는 사회적 비용부담으로 전가되어 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요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기업활동에 따른 추가적 비용으로 인식되고 이는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의 비효율성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함.

4.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에서 “사회책임투자(SRI)”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기업이 주도적으로 전개하는 다른 사회적 책임활동과는 달리, SRI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이 투자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 이러한 투자자에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기업, 대학, 병원재단, 보험회사, 연기금, 비영리기관, 교회 등의 기관투자가들이 포함되어 있음.

○ SRI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책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현재 SRI는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본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신흥국가와 개도국의 기업들에게도 점차 그 영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6월 17일 ‘제1회 사회적책임투자 국제콘퍼런스’가 열리기도 했으며 2003년 12월말 제일투자증권이 ‘기업책임을 위한 시민연대(CCSR)’와 공동으로 국내 최초로 ‘사회책임투자(SRI)-머니마켓펀(MMF)’판매를 시작한 바 있으나, 아직 큰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높아진 인식과 관심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한 경제·사회발전으로 이어지려면 국내외 모든 기업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이윤창출'이라는 기업의 궁극적 목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자선활동이 아닌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며, 이러한 이윤창출을 통해서만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하며, 납세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음.

- 이윤창출이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이윤창출 활동을 저해하거나 위축시키는 별도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 따라서 기업의 이윤창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소비와 투자를 진작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고용의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규제완화를 포함한 법적·제도적 환경의 개선하고 기업가에 대한 사기진작 등이 필요함.

○ 아울러 기업인들은 기업에 대한 불신과 반기업 정서를 불식시키기 위해,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여 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완수해 나갈 것임. 끝.